

〈書 評〉

#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by W. W. Rostow

李 政 在

第2次大戰後 自由陣營의 諸國家와 社會主義陣營의 諸國家는 戰前의 停滯에 比하여 飛躍의인 經濟發展을 이루었다. 이는 매우 注目할만한 事實이며 이에 대한 經濟理論도 그 中心이 長期動態理論으로 轉換되었으며 實際政策에 대한 適用範圍도 加一層 擴大되었다. 實際 一線事務家들에게도 이것이 깊이 浸透되어 現狀分析에 理論이 提供한 分析要具를 適用하게 되고 問題解明에도 諸學說이 引用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過程에 있어서 重大한 問題가 惹起되고 있다. 經濟發展에 있어서 地域의으로나 產業別로나 不均等한 發展相을 보여 주고 있다. 즉 先進國과 後進國의 經濟發展水準의 差異는 더욱 擴大되고 있으며 農業과 工業等の 產業間에도 不均等한 發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先進國에서는 네프래의 傾向이 後進國에서는 인프래의 傾向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發展差異와 不均衡의인 要因을 內包하고 있는 諸國家에 의하여 形成되고 있는 國際經濟에 있어서도 不安定한 움직임을 示顯하고 있으며 自由, 社會, 兩陣營對立에 의한 그 緊張關係는 더욱 이를 刺戟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戰後의 經濟의움직임에 있어서 順調로운 均衡의 經濟成長을 어떻게 하여 이룩할 수 있는가는 重大한 問題인 것이다.

이와 같은 問題에 當面한 經濟學界에서는 그 理論範圍를 擴大하여 長期動態理論의 精密化 및 體系化와 後進國開發論및 經濟構造比較論等으로 이 問題解決에 苦心하고 있는 것이다.

이 渦中에 第2次大戰後 專門的 經濟學者에 의하여 이루어진 政治經濟論說中에서 가장 鼓舞의인 貢獻이며 또한 큰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는 Rostow에 의한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라는 冊을 紹介하는 것은 學究의인 立場에서나 革命後 經濟發展에 總力을 기우리고 있는 韓國의 現實에서나 意義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韓國에서도 여러 先輩가 이에 대한 譯書를 비롯하여 論評이 公表되어 있지만 本書는 經濟史家가 近代經濟理論家들의 中心의 關心을 集中시키

고 있는 經濟成長에 관한 理論的分析을 內在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動態理論面에서 本書 第6章까지의 經濟成長의 5段階를 紹介하고자 한다.

1916年 紐育市에서 誕生한 Rostow는 Yale大學에서 工夫하여 學位를 얻고 Oxford에서 研究하였다. 1941年 Columbia大學의 講師로 있었으며 戰後 國務省 國際聯合歐羅巴經濟委員會에서 일 하였고 1951年 M.I.T大學 經濟史教授로 就任하여 今日에 이르렀으며 最近에 캐나다行政府의 「브레인·트러스트」로서 國務省顧問및 政策企劃委員會委員長으로 任命되었다. 끝으로 그는 經濟史家일 뿐더러 卓越한 理論經濟學者임을 덧붙쳐 둔다.

그의 主著로서는

- ① The American Diplomatic Revolution, 1947.
- ② Essays on the British Economy of the Nineteenth Century, 1948.
- ③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1952.
- ④ The Growth and Fluctuation of the British Economy, 1790~1850, 1952.  
by A. D. Gayer, W. W. Rostow and A. J. Schwartz.
- ⑤ The Dynamics of Soviet Society, 1953.
- ⑥ The Prospects for Communist China, 1954, by W. W. Rostow and Others.
- ⑦ An American Policy in Asia, 1955, by W. W. Rostow and Others.
- ⑧ A Proposal Key to an Effective Foreign Policy, 1957, by W. W. Rostow and Others.
- ⑨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1960.

등이며 이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는 가장 最近의 著書이며 Rostow教授가 Cambridge大學에서 An Economic Historian's Way of Envisaging the Sweep of Modern History이라는 講義를 하고 이 內容을 要約하여 1959年 8月 22日の **The Economist** 라는 英國의 經濟週刊紙에 **A Non-Communist Manifesto** 이라는 副題目下에 掲載하였으며 1960年 이를 單行本으로 刊行한 것이다.

## 二

既述한 바와 같이 第2次 大戰後의 重大한 經濟的 課題는 順調로운 均衡的인 經長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는가였다. 그러나 戰後의 經濟成長問題는 어느 特定한 國民經濟發展에 局限된 問題일 뿐만 아니라 廣範한 國際的 視野에서 相異한 經濟形態與件을 示顯하고 있는 各 國民經濟間에 協同體를 構築하여 經濟發展을 實現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經濟理論도 이러한 諸點이 考慮되어 實證的인 社會科學으로서 그 實證的 適用領域의 擴大가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事實 戰後 이 要請에 適應될 수 있게 Keynes 經濟理論을 中心으로 즉 所得循環機構를 中心으로 動學化

하여 經濟動態의 過程을 分析할 수 있게 되어 그 實證的 適用領域이 擴大되었다는 것은 事實이지만 元來 經濟形態의 差異란 歷史性과 地域性에 의한 要素가 主要部分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相異한 內容을 內包하고 있는 資本主義社會의 歷史過程을 이 動態理論이 統一的으로 說明할 수 있게 되기에는 相當한 距離가 있다는 것은 事實이다.

經濟理論이란 經濟行動을 分析하는 價値論을 中心으로 하여 資本蓄積의 行動과 經濟社會의 歷史的 過程을 統一的으로 說明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와같은 資本蓄積行動에 經濟社會의 歷史的 過程을 表示하는 經濟形態要因이 反映되어 이것을 把握할 수 있게 理論이 形成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現段階의 經濟理論은 Keynes 理論의 一般化過程에 있으며 未完의 段階에 놓여 있음으로 戰後의 經濟的 課題를 解明할 수 있는 實證的인 社會科學으로서 經濟理論이 成熟되어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課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今後의 經濟理論은 어떻게 發展되어야 할 것인가. 이 點을 把握하기 위하여 우리는 第2次 大戰後 發展하여 온 動態理論의 代表的인 것—Harrod의 動態理論과 Robinson의 資本蓄積理論—을 資本主義社會의 歷史的 過程解明이란 問題와 結付시키어 要約함으로써 이의 方向摸索을 위한 起點으로 삼으려 한다.

첫째 Harrod는 그 理論에서 適正成長率과 自然成長率을 區別하고 있다. 즉 適正成長率은 資本形成率과 資本係數의 比로서 決定되는 것으로 內生的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自然成長率은 人口成長率과 技術進步에 의하여 規定되는 것으로 外生的인 것이다. 前者는 經濟過程에서 企業家行動에 의하여 規定되어 經濟的合理性에 關聯되며 後者는 主로 社會的領域에서 決定되어 地域性과 歷史性을 內包하고 있다. Harrod는 이 兩成長率이 合致될 때 비로소 經濟는 順調로운 發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兩者의 一致는 偶然에 不過하며 一般的으로는 分離된다는 것이며 歷史的 過程에 있어서 長期的 停滯可能性을 暗示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注目할 點은 外生的인 data와 內生的인 data를 區分하여 直接 關聯시키지 못하고 있는 點이다. 즉 資本蓄積行動 그 自體內에 歷史的인 與件을 反映시키지 못하고 있는 點이다. 이와같이 與件을 內生化시키지 못하였다는 批判을 解明하기 위하여 둘째로 Robinson은 適正成長率과 自然成長率의 區分을 버리고 資本蓄積行動에 「心理的 性向과 社會的 convention」이 內在되는 例컨대 貸金率과 預金利率등의 作用에 注目하여 이와 같은 parameter에 의하여 人口增加, 技術進步, 資本蓄積의 關係가 調整되어 간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經濟過程에 反映되는 歷史性과 地域性을 解明하려 하였다. 그렇다면 順調로운 經濟成長은 經濟行動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parameter의 調整에 關係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萬一 이와 같은 parameter의 變動에 制限이 加해져서 非彈力的으로 된

다면 順調로운 經濟成長의 持續은 不可能하게 될 것이며 停滯發生의 可能性을 豫想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또한 注目해야 할 點은 基本的인 parameter에 의하여 人口增加나 또는 技術進步와 같은 與件이 規定된다는 點이며 反對로 人口增加와 技術進步가 資本蓄積率에 作用하는 點을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이 點은 過去의 諸社會에 있어서 經濟成長을 阻害 또는 促進하는 諸與件이 있었다는 點으로 미루어 보아 明白히 取扱되어야 할 點이며 經濟發展을 社會生活이란 廣範한 見地에서 본다면 經濟生活價值 以外的 다른 生活價值와 結付되어 生活價值態度가 經濟活動에 作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資本蓄積이 人口增加 技術進步를 規定한다는 點 以外에 이와 같은 與件이 資本蓄積에 作用하고 있다는 點을 忘却할 수는 없으며 相互聯關關係에서 理論이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Rostow는 完全한 內生的 理論體系를 確立하지는 못하였지만 새로운 局面을 開拓하여 接近하고 있는 것이다. 즉 近代諸社會의 成長過程에 關하여 段階의으로 動態的인 生産理論을 根據로 하여 一貫性있게 歷史理論的 接近方法으로 成長理論을 展開하고 있으며 그는 이와같은 分析을 試圖하기 위하여 傳統的 經濟領域을 擴大하여 社會領域까지 內包시켜 他科學과 連結을 지어 連環的 體系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具體的으로 이 成長의 五段階를 中心으로 說明한다면 다음과 같다.

### 三

Rostow는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中에서 理論的인 그 分析方法을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즉 產出高 또는 產出高의 變化는 勞動力과 資本의 規模 및 生産性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하여 이를 主變數로 하고 이 主變數를 規定하는 많은 助變數 즉

㉠. 勞動力의 規模 및 生産性의 經常的 變化에 關係되는 것으로

1. 出生率
2. 死亡率
3. 勞動力에서 婦人 兒童의 役割
4. 勞動力의 熟練度
5. 勞動力에 의하여 投入되는 勤勉度

㉡. 資本의 規模 및 生産性의 經常的 變化에 關係되는 것으로

1. 資本(自然資源 基礎科學과 應用科學 組織技術등)의 增加分에 의한 收益
2. 基礎科學研究에 配分된 資源量
3. 應用化學研究에 配分된 資源量
4. 潛在的革新의 flow와 stock中에서 利用可能한 部分의 比率

5. 經常的 投資에 配分되는 資源量

6. 上記 五項目과 關聯시켜 볼 때 願하는 消費水準의 適當性

等を 規定하고 全體的인 社會活動을 反映시켜 이 크기의 決定에 影響을 미치는 여섯個의 「性向」을 導入하고 있다. 즉

1. 基礎科學(物理科學과 社會科學)을 發展시키는 性向
2. 經濟의 諸目的에 科學을 適用하는 性向
3. 革新을 받아 드리는 性向
4. 物質의 向上을 要求하는 性向
5. 消費性向
6. 産兒性向

等이다. 이와같은 「性向」은 經濟收益과 더불어 助變數를 通하여 經濟成長을 規定한다는 것이다. 人口와 技術變動도 이 助變數에 의하여 說明되며 이 助變數가 經濟收益과 「性向」에 의하여 規定된다는 意味에서 體系에 內生化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性向」은 거의 外生的이며 與件의 一部分만이 體系에 內生化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에 그의 基本的 態度를 把握할 수 있는 것이다. 즉 社會構造와 政治構造가 一部分 그 社會의 經濟生活에 의하여 決定되며 反對로 經濟運行은 一部分 그 社會의 社會的 및 政治的 構造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傳統的 經濟領域의 擴大와 與件과 經濟의 相互聯關關係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理論的인 分析方法을 中心으로 成長過程을 說明하는데 있어서 *Rostow*는 經濟史家로서 理論家에 比하여 하나의 特徵이었다. 즉 近代經濟學者들은 古典學派의 生産理論을 *Keynes*의 所得分析和 結付시켜 公式의 으로 消費 貯蓄 및 投資間에 있어서의 所得配分을 總括的으로 考察하고 있지만 그는 이 以外에도 經濟의 特定部門에 있어서 投資構成과 發展過程을 直接的으로 詳細하게 說明하여 本質的으로 全體成長過程을 把握할 수 있게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Rostow*가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에서 展開하고 있는 成長理論은 經濟史의 過程을 既述한 바와 같은 分析方法에 立脚하여 動態的인 生産理論으로 說明하였고 段階的인 成長過程으로 보는 同時에 이 段階的인 分類가 成長의 生産函數의 不連續性(段階初期에 있는 成長速度가 急激하다)과 需要의 彈力性에 의하여 可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五段階說을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즉

#### 첫段階—傳統的社會

이 社會는 「뉴톤」以前의 科學 및 技術水準에 놓여 있는 社會이며 構造的으로 制限된 生産函數內에 머물러 있는 社會이다. 즉 階級的인 社會構造의 地方八極的인

無感覺한 狀態에 머물러 있었던 社會이다. 이 段階은 傳統的 社會 以後의 諸社會를 다루기 위한 通路를 마련하려는 것에 不過한 것이다.

#### 둘째 段階—跳躍을 위한 先行條件充足的 段階

이 社會는 一般的으로 傳統的 社會內部에 根本的인 變化 즉 生産技術과 더불어 社會 및 政治構造를 實質적으로 改革하는 變化가 惹起되었던 社會이다. 즉 變化에 의하여 經濟發展을 圖謀하려는 諸性向이 成立하게 되어 投資率의 上昇을 要求하게 된 社會이다. 그러나 이것은 實際로 나타나고 있는 特定產業部門의 發展의 結果인 것이다. 따라서 政治적으로는 民族主義가 台頭되고 近代國家가 形成되어 指導의 役割을 하는 同時에 社會的 價值變化로 새로운 指導層이 發生되어 近代的 產業構造가 育成될 수 있게 特定產業 特別 農業 및 採取의 產業을 發展시켜 都市에 食糧供給增大의 市場擴大 및 貸付資金의 供給增大을 齎來케 하였고 社會的 間接資本 (그 밖에서도 特別 交通機關)이 蓄積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特定產業部門의 急進的인 發展과 政治 社會構造의 改革이 相互 關聯되어 跳躍的 發展을 위한 基盤이 助成되는 社會이다.

#### 셋째 段階—跳躍段階

이 社會는 生産方法의 急激한 變化와 直結되어 比較的 짧은 期間에 決定的인 成果를 가져 오게 되는 產業革命段階인 것이다. 前段階에서 跳躍을 위한 先行條件으로 새로운 社會, 政治構造, 價值觀이 完全히 浸透되어 있음을 前提로 經濟發展을 受容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게 되며 이러한 態勢下에 여러 形態의 衝擊에 의하여 하나 또는 그 以上の 先導的인 新生製造產業部門의 急速的인 成長이 轉換過程의 強力하고도 核心的인 起動力이 되어 投資比率과 生産性을 上昇시키고 反對로 이 結果에 의하여 相異한 여러 技術的 經濟的 經路를 거쳐 自己補強的인 全般的 成長過程을 걷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社會의 面에서는 傳統的 社會를 固守하거나 어떤 다른 目標을 追求하는 사람들에 대한 自國經濟의 近代化를 꾀하던 새로운 指導層은 社會的, 政治的으로 確固한 勝利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

#### 넷째 段階—成熟段階

이 社會는 技術面에서는 그 資源의 大部分에 대하여 當時의 近代的 技術을 効果적으로 應用하는 時期였고 先導的인 部門別產業發展面에서는 跳躍段階의 先導的 產業部門의 成長이 減速化되어 擴大速度가 緩慢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先導的 產業部門이 發生한 段階이다. 그리고 社會的으로는 勞動力은 變化하여 都市化되고 半技術者와 事務員에 屬하는 勞動層이 增大되고 組織이나 또는 社會的 存在로서 自己를 내 세움으로써 所得과 雇傭 및 厚生上의 安定을 얻게 되었다. 企業家는 專門的인 知識을 가진 經營者로 代替되고 이와 더불어 工業化된 成熟段階을 當然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批判하여 文學이나 社會的 大衆의 思想 및 政治分野에 까지 影響을 미치는 深刻한 變化가 惹起되었다.

### 끝으로—高度大衆消費段階

前段階의 批判的인 思想變化는 그 價值觀과 經濟成長을 圖謀하려는 힘이 人間精神에 대한 獨占의 支配力을 喪失하게 되었다. 이러한 人間精神은 生産面에서 漸次 消費 및 넓은 意味에서 厚生問題로 移行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思想下에서 成熟經濟의 資源은 社會厚生과 社會保障에 配定하게 되고 漸進的으로 消費耐久財의 大量生産과 消費「서비스」의 大量 普及으로 移行하게 되어 高度大量消費段階로 되었다. 이 段階의 先導産業은 耐久消費財 및 「서비스」部門이며 이는 實質 賃金의 上昇이 基本的인 衣食住水準을 凌駕하는데도 基因되는 것이다.

이러한 成長의 五段階가 展開되는 根本的인 動機는 生産函數의 發展과 變化에 의하여 어느 段階를 莫論하고 그 段階의 經濟發展推進力은 比較的 少數의 先導的 産業에 의하여 發揮되었으며 이 産業이 段階初期에 急激한 發展을 示顯하고 있는데서 段階區分이 可能的인 것이며 이에 關聯되어 새 資材에 直接的인 需要를 繼續的으로 誘發시키므로써 새로운 先導的 産業과 補完 및 派生的 産業部門을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成長過程을 通하여 人間과 社會는 選擇해야 할 具體的인 問題와 可能性에 부딪치게 되며 이는 非但 經濟分析뿐만 아니라 當該 社會內部에 있어서의 有効한 基本的 價值體系가 反映되었던 것이며 이 基本價值體系는 또한 그 一部分이 經濟成長에 基因하였던 것이다.

## 四

以上과 같이 *Rostow*의 理論은 集計值로서 所得分析을 中心으로 한 從來의 動態論을 踏襲하지 않고 特定の 先導的 産業部門을 中心으로 全體成長過程을 把握할 수 있게 하는 生産의 動態理論을 展開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動態理論은 그 理論 自體에서 볼 때 *J. S. Mill*과 같이 經濟行動과 諸「性向」을 相互關聯시키므로써 連環的 體系를 樹立하고 있으나 아직 一般的 統合的인 理論體系로는 完成되지 못하고 있으며 經驗論인 連環的 體系에 不過하고 國際經濟를 構成하는 各國民經濟의 發展 乃至 經濟成長의 相異는 諸「性向」의 差異에 基因되는 것으로 說明될 것이며 國民經濟의 構造比較論의 길을 열게 된다. 이러한 見解에서 先進國과 後進國과의 差異가 說明될 수 있고 또한 諸産業間의 不均等한 發展이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注目하여야 할 點은 國民經濟의 構造比較에 의하여 說明되는 點으로서 戰後의 課題가 解決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全體의 理論體系에서도 아직 未完段階에 놓여 있는 것은 勿論이지만 諸性向이 觀念的이고 抽象的인 要素를 內包한 概念이며 科學的인 確定性이 아직도 缺如되어 있으며 더욱 成熟段階以後의 變化에 의하여 人道的 改革을 強要하는 社會의 壓力을 어떻게 解決할 것인가는 큰 問題이다. 이 人格性의 要求는 特히 *Rostow* 理論과 같은 連環的體系에 있어서는 解明되어야 할 重大한 問題이며 이것이 「性向」에 影響을 미치어 經濟成長의 沮害要因이 된다면 順調로운 均衡的 經濟成長이란 課題에 致命的인 打擊을 加하게 되기 때문이다.